



내 앞에 놓인 우연한 일들

Unexpected Events Before Me

사무엘상 6장 1-12절

1. 여호와와 그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 일곱 달이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3.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4.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아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멩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젃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 여호와와 그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벰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젃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 여호와와 그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 암소가 벰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벰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1. 양자물리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오스트리아의 ‘플로리안 아이그너’가 “우연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함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2.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2).
3.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물과 여호와와 그의 궤(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두 암소들이 끌어 벰세메스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를 통해 테스트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7-9)
4.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와 속건제물을 실은 수레를 메고 벰세메스로 곧장 가면 지금까지 여호와와 그의 궤로 인하여 일어났던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모두 우연히 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는? (12)
5. 수레를 끌었던 두 암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봅시다(7).
6.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나요? 그 부분을 나눠봅시다.
7. 저는 설교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와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보면 보물이 보이는데, 제아무리 보물이 눈앞에 숨겨져 있어도 보물찾기인줄 모르면 눈 앞에 있는 숨겨진 보물은 모두 ‘배경화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가운데 숨겨진 보물(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떻게 숨겨있는지 생각해 보고 서로 나눠봅시다.

